

<서평>

인도네시아 미의식과 실천에서 발견되는 공거의 윤리와 차이들의 번역

조윤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성』. 광주: ACC, 2021.

박 준 영*

I. 들어가며

한국의 제 21대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2022년 1월 기준) 한 후보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이 공약은 큰 화제가 되었고, 특히 주기적으로 탈모 치료를 받고 탈모약을 구입하는 당사자들로부터 환영받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공약을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이라 비판했다. 탈모약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한 논쟁이 재정의 문제로 수렴될 때, 이 공약을 낸 후보는 관련 논쟁을 ‘신체 완전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했다¹⁾. 필자는 이 공약의 평가와 지지 여부를 떠나 탈모(머리카락)에 대한 이해 방식을 ‘부분적이고 부가적인 미용 요소’에서 ‘신체 완전성의 구성 요소’로 전환시키는 후보의 주장이 흥미로웠다. 필자는 낯설지만 흥미로웠던 미용과 신체 완전성에 대한 논쟁을 도서 『인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1) 서울경제, 2022/01/05, 이재명 “탈모는 ‘신체완전성’ 문제..건보료 지원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QXYL3MU>

네시아 사람들의 성』(이하 ‘이 책’)의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의 성(姓)과 미용, 건강 실천을 관통하는 미의식을 분석한다. ‘전인적인(안팎의) 아름다움’과 ‘평안’, 그리고 ‘돌봄’ 등의 키워드로 인도네시아 자바의 미의식과 실천을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현대의 ‘웰니스 뷰티’와 비견되며 창조 경제의 가능성으로 논의된다. 낯선 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흥미로운 경험이다. 이 책은 조심스레 비밀의 문을 열 듯 낯선 문화에 접근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긴장감을 갖고 저자의 해석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대중서적을 지향하지만 조사 방법에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민족지 연구의 정수를 보여준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때²⁾ 만난 한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와서 경험한 ‘인식 전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흔히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과 연동되고 이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덧씌워진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한인들이 새로 본 인도네시아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새로운 인상의 인도네시아는 ‘잘 웃고 친절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단어들로 설명된다. 필자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경험했다. 저자가 이 책을 시작하며 설명한 (집필의 계기가 된) 경험 또한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필자와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인식 전환의 순간에 가진 의문들은 이 책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이 책은 또한 인식 전환을 경험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낯선 문화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고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한다.

2) 필자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튼주 땅그랑시에 거주했다.

II. 인도네시아 미의식과 건강, 성 실천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사이에 총 6개 장(chapter)으로 구성 되어있다. 주제와 관련한 사례와 해석, 사진 등을 교차 제시하여 저자의 분석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가 이 장들을 범주화하여 구분하진 않지만, 1장과 2장은 인도네시아 자바 사람들의 성과 건강 실천을 역사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3장과 4장은 이러한 실천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건강과 미용 그리고 성 이해 및 실천의 미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의 프롤로그는 여느 책의 프롤로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프롤로그에서는 앞서 소개한 저자의 인식 전환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후 이어지는 본문은 저자가 인식 전환의 순간에 가진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저자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여러 미용실과 스파(Spa)에서 제공하는 여성 성기 관리 서비스인 ‘라투스(Ratus)’와 인도네시아 전통 혼합 약재이자 미용 용품인 자무(Jamu)의 다소 노골적인 선정적 광고를 발견했던 경험을 소개한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이 경험은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인식인 신실한 무슬림 문화 실천과 비교 제시되며 독자들을 인도네시아 미의식에 담긴 의미 분석으로 초대한다.

1장과 2장에서는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상반된 문화의 충돌과 조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이 소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통적인 미의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적용·실천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현대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전통과 이슬람 신앙에 영향을 받은 ‘예쁘다, 아름답다’는 인식의 형성 및 공유 과정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의 미용, 성 실천은 전인적인(안팎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저자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미의식이 현대의 웰니스 뷰티와 연관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인도네시아 자바의 미의식과 실천의 의미를 분석하고 웰니스 뷰티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자무 제조, 판매(구매), 섭취 과정, 그리고 4장에서는 (혼인 관계의) 섹스가 자신의 몸과 가족, 나아가 사회적 돌봄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개인의 신체로부터 공동체까지 돌보는 자무와 섹스는 신체와 사회적 실천의 ‘평안’에 기여한다.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종교적 실천이 돌봄과 평안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자무와 섹스의 역할은 종교적 실천과 연결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사회의 일상 대화와 관련 상품의 광고에서 자무와 섹스 역할의 공개적 표현은 ‘남사스러운’ 행위라기보다 종교적 실천과도 연결되는 ‘숭고한’ 행위의 일종이다. 나아가 저자는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인도네시아의 미의식과 웰니스 뷰티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개인(신체)으로부터 가족, 공동체를 돌보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미의식과 실천이 현대 웰니스 뷰티가 추구하는 목적과 맞아맞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미용, 성에 대한 전통 지식 및 실천의 미래 가치를 평가한다. 전통적인 미의식에 기반하여 민간이 유지해 온 인도네시아의 건강 실천은 정부가 검증하고 인증하여 인도네시아 창조 경제의 자원이 된다. 이미 인도네시아 자바에서는 전통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에스노 웰니스(Ethno Wellness) 산업이 인도네시아 중산층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몸 돌봄의 전통지식을 상업화하여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자무 재료의 효과를 공인하고 스키의

발전을 지원하고 전통 지식의 상업화를 위한 민간의 시도 독려 등이 구체적인 역할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바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현대적 감각과 조화시킨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재 자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자바의 전통 미의식 및 건강 관리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III. 해제

1. 불편한 문화를 이해하기

아래에서는 이 책에 대한 필자의 감상과 관련 주제에 대한 고찰을 논의한다. 먼저 이 책을 읽으며 필자가 느꼈던 소소한 불편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자바의 전통적인 미의식은 여성의 미의식에 치중되어있고 인도네시아 자바의 여성들은 이로 인해 형성되는 미적 기준에 평가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전인적인 아름다움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의미했고 평안의 돌봄도 주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돌보는 여성들이 ‘아름답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필자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한 측면을 충실히 이해하자는 의도로 이 책을 읽었지만, 이와 같은 인상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비판자의 태도로 돌아갔다. 이러한 측면은 저자도 에필로그에서 언급한다. 그러나 저자는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성역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문화논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 책의 서술 취지라고 덧붙인다.

또 다른 불편함은 미의식 실천에서 관찰되는 이슬람 경전주의의

그림자였다. 책의 설명에 따르면 이슬람 경전은 인도네시아 자바의 미의식과 실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전인적인 미의식 형성에 대한 이슬람 경전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섹스에 대한 이슬람 경전의 내용은 지나치게 규율적이거나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존재했다.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에서는 이를 현대 과학과 위생 개념으로 적절히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었지만, 경전의 문자가 인식과 실천의 근거가 되는 상황은 우려스러웠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에 이슬람 단체와 정당 등이 이슬람 율법을 근거로 반대하는 상황과 중첩되며 발생했다³⁾. 저자가 이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도 문화 이해를 위한 가치판단을 최소화하는 서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자는 다른 문화에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옹호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즉,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갖는 불편한 감정을 해소시키기보다 충분히 느끼도록 서술한다. 필자는 이 책이 선사하는 불편함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동적인 객체로만 머물 수 있었던 여성들이 자무를 개발하여 유통하는 행위자로 나서는 등 전통 문화의 현대(상업)적 계승자로 나서는 측면도 존재했다. 또한 자무 등 미용 제품의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전통 미용 의식을 상업화하려는 이들에게 더 넓은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구하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중개자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불편함을 통한 다른 문화의 적극적인 해석은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의미라 할 수 있다.

3) The Jakarta Post, 2021/11/18, "Consent vs 'nikah': Indonesia's culture war won't end anytime soon", <https://www.thejakartapost.com/opinion/2021/11/17/consent-vs-nikah-indonesias-culture-war-wont-end-anytime-soon.html>

2. 혼성적 창조성

저자는 책 서술의 전반에서 자무의 제작, 유통, 섭취 과정을 인도네시아 미의식 실천의 주요한 과정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자무가 갖는 의미에 집중했으며, 이로부터 확장시킨 고찰은 아래와 같다. 자무의 경쟁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식물자원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약 7,000종의 약재가 약재로서 효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이 중 약 940종 정도가 자무의 약재로 사용된다(239). 자무는 개별 약재들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니, 그 수는 쉽게 헤아릴 수 없다. 책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자무의 재료도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자무의 무한한 가능성은 자무 상업화의 이해당사자에게 큰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역사에서 자무의 재료가 되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식물 자원은 역사적 아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애석하게도(?) 인도네시아 식물 자원의 풍부함과 탁월함을 알아본 서구 제국주의 권력들은 이에 대한 유통을 독점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 욕망을 식민 지배로 실현했다. 인도네시아의 16~17세기는 제국주의 권력 다툼의 주요 무대가 되었고 1600년대부터는 네덜란드의 직·간접적인 지배가 이루어졌다. 포르투갈, 영국 등은 인도네시아 지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침략을 시도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식물자원으로 만든 향신료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주의 욕망을 자극했다.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향신료의 원재료인 식물 자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서구 제국주의 권력들이 탐할만큼 우수한 천연 자원으로 자부심을 느꼈을까.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 식민 지배를 불러온 원망스러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필자는 인도네시아가 식민주의 공간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 문화 예술의 창조적 공간으

로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박준영, 2021).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파타힐라 광장(Taman Fatahillah)이 분석 대상 공간이었는데, 과거 식민지배의 비극(감옥, 수용소, 처형장 등으로 활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이 공간이 현재는 머스킹 공연이 열리고 자전거를 타고 밤에는 폭죽놀이가 열리는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이 광장뿐만 아니라 광장 주변에 위치한 과거 식민 행정과 무역을 위해 지어진 건물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카페 등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혹자는 이 변화를 두고 인도네시아인들이 ‘참속도 없다’고 쉽게 평가하기도 한다. 식민지배 과거를 생각하면 이 공간에서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이 공간을 즐거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연구 질문 역시 이와 같은 의문 위에서 형성됐다.

필자는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비극의 공간에서 즐거움의 공간으로 변화)에서 발견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탈식민주의 인식을 ‘과거를 망각한 이들의 몰지각한’ 인식이라기보다 식민주의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적 구도를 허무는 해방적인 탈식민주의 실천 인식이라 해석했다. 이 실천을 통해 식민주의의 비극과 아픔은 분노에 머무르기보다 창조적 탈식민 실천으로 승화했다. 탈구조주의적 탈식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식민주의 질서는 억압적인 이분법적 관계(지배자-피지배자)를 뒤흔드는 혼성적인 교란을 통해 해체된다(이경원 2011; Bhabha 2012). 이 사례에서 관찰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의 행위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에 머무르며 가해 사실을 고발하기보다 새로운 공간 질서를 창조하는 주도적이고 해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필자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현대 인도네시아의 자무 활용 또한 혼성적 탈식민주의 실천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식물 자원은 식민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활용한 자무로 신체와 공동체를

돌보고 창조적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식민주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발견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가 겪은 역사적 아픔의 원인은 현대 인도네시아인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있다. 식민주의의 대상이었던 스파이스 제도(Spice Island, 238)는 이제 신체와 공동체를 돌보는 약재와 미용 제품의 생산지로 변화하고 있다.

3. 다양성 속의 '공거'를 위한 번역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식민 지배 기간 제국주의 권력이 남긴 여러 모순을 창조적 역량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인도네시아의 건국 정신이자 현재 국가 운영 이념이기도 한 뻠짜실라(Pancasila)를 논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식민 지배 시기 이전 하나의 국가나 부족(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으므로 공통된 국가 정체성의 수립이 필요했다.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개념이 바로 '다양성 속의 통일(또는 통합) (Bhinneka Tunggal Ika)'을 의미하는 뻠짜실라이다. 언어, 종교, 부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했던 독립 인도네시아의 시급한 과제를 반영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뻠짜실라의 의미는 자무에서 드러난다. 자무는 다양한 식물 재료와 약재들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다. 자무로 자신의 신체와 공동체를 돌보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우선 자신의 신체와 공동체에서 뻠짜실라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건국 이념이자 국가 운영 목표로서 '다양성 속의 통일'은 다양성보다 통일에 방점이 찍혀있다. 지나친 통일의 강조는 문화적 차이들의 우열(위계적 질서)을 만들며 인도네시아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는 인도네시아의 뻠짜실라의 의미 변화를 제안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의미 변화는 다양성 속의 '공거'이다. 공거의 윤리는 주디스 버틀러의 개념으로 서로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특정 집단이 억압받는 상황과 질서에는 함께 저항하는 정신을 의미한다(Butler 2015). 필자는 인도네시아에는 ‘다양성 속의 공거’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차이들의 번역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차이들의 경계를 현상 분석 방법으로 제시하는 Mezzadra·Neilson(2013)은 차이들은 구분되거나 융합, 혹은 통합되기보다 서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성실히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서로 다른 언어, 지식, 문화 자본 등은 번역 과정에서 소통과 상호 작용을 거치며 새로운 집합체(Assemblage)를 만들어낸다. 이를 번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의미의 완전한 복제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미의 간극이 발생하며 두 언어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차이의 요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닮았기 때문이다.

서로를 번역하는 차이들은 합일을 이루지 않는다. 의미의 차이들은 부단히 미끄러지며 뒤엉킨다. 인도네시아 현대사에서 ‘위’에서는 다양성의 통일을 추구했지만, ‘아래’에서는 차이들이 공존하고 서로를 번역하며 다채로운 집합체를 형성했다. 마치 다양한 식물 재료들의 조합으로 약재와 미용 제품인 자무를 만드는 것처럼. 마치 다양한(탈)식민 창조적 역량이 문화예술의 공간을 조성한 것처럼. 다양성의 공거는 자무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인도네시아 국가 공동체를 돌보는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 문화에서 신체와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들은 돌봄의 과정에서 전인적인(안팎의)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전인적인 아름다움의 완성과 신체(공동체) 완결성은 하나의 질서로 통일되기보다 각자의 존재가 온전히 존중받으며 공거할 때 실현된다.

IV. 나가며

이 책의 저자는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의 미의식과 실천을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의 미의식과 실천은 신체와 가족,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평안을 돌보며 전인적인(안팎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드러내고 인도네시아 자바의 전통적 미의식이 현대 사회가 갖는 문제를 치유하는 창조적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논의한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실천 문화가 모두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 불편함은 다른 ‘발견’의 가능성을 열어 낯선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필자는 저자가 소개한 미의식 실천 중 자무의 제작과 유통 과정에 집중하여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의 탈식민 실천 해석에 적용했다. 식민 시기의 아픔은 분노로 머물기보다 혼성적 창조성으로 승화하여 현대 인도네시아 개인과 공동체를 치유한다. 제도적 탈식민(정치적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는 다양성으로 인한 과제를 뺏짜실라로 극복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성들의 ‘통일’을 추구했다. 이 때 ‘통일’되지 않은 다양성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 미처 치유하지 못한 식민적 비극으로 남았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을 발전시킨 ‘다양성 속의 공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거의 윤리를 통해 차이들은 온전히 함께 거주(공거)하며 서로를 성실히 번역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에서 추구하는 전인적인(안팎의) 아름다움이란 합일로 인한 아름다움이 아닌, 차이의 존중과 번역되는 과정의 아름다움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신체와 공동체의 완전성의 의미를 고민해볼 수 있다. 차이와 다양성은 하나의 기치 아래 합쳐지기보다 각 기관과 개인들이 온전한 모습

으로 공존할 때 평안이 자리잡고 이를 완전한(전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도 또한 이 책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바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공거의 윤리와 차이의 번역을 실천할 수 있다. 자무와 인도네시아 미의식, 그리고 탈식민 실천으로부터 이해한 차이(다양성)의 공거는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성실한 번역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참고문헌

박준영. 2021.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으로서 저항의 공간과 제3의 공간 조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원. 2011. 『검은역사 하얀이론』. 경기도: 한길사.

Bhabha, Homi K. 2012.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Butler, Judith. 2015.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Mezzadra, Sandro and Neilson, Brett. 2013. *Border as Method, or, the Multiplication of Labor*. Duke University Press.